

【 해외금융뉴스: 일본 】

은행 · 생보업계, 2010년 채용규모 예상보다 클 듯

- 최근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채용시장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주요 은행 및 생보사들의 2010년 채용규모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
- 미즈호파이낸셜 그룹과 미츠이스미토모 은행은 올해보다는 적지만 내년에도 1,000명이 넘는 대량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실적이 비교적 좋은 리소나홀딩스의 경우 올해 850명에서 내년에는 900명 정도로 오히려 채용인원을 늘려 개인고객 대상의 영업력 확충에 주력할 계획임.
- 생보업계에서는 메이지야스다생명이 올해와 같은 550명의 신규인력을 총원할 예정이며, 스미토모생명은 올해보다 줄어든 240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알려짐.

일본 주요 은행 및 생명보험사 2010년 신규인력 채용 계획

금융기관명	2010년 신규채용인원(09년 신규채용인원)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1,750명(2,350명)
미츠이스미토모 은행	1,100명(2,100명)
리소나 홀딩스	900명(850명)
스미토모 신탁은행	2009년 수준(276명)
미츠비시 도쿄UFJ 은행	미정(1,500명)
메이지야스다생명	550명(550명)
스미토모생명	240명(400명)

자료 : FujiSankei Business I. 2월 24일자 기사 참조

- 금융사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채용규모를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는 것은 과거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시 신규채용에 소극적이었다가 이후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생긴 피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됨.
- 90년대 불황시에 대형은행들은 신규인력 채용에 소극적이어서 이후 영업현장에서 젊은 종견사원이 부족하게 되어 그로 인한 영업손실 후유증을 장기간 겪음.
- 생보업계 역시 실적악화로 인해 고용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채용으로 일정수준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과거 전례를 통해 잘 인식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2/24)